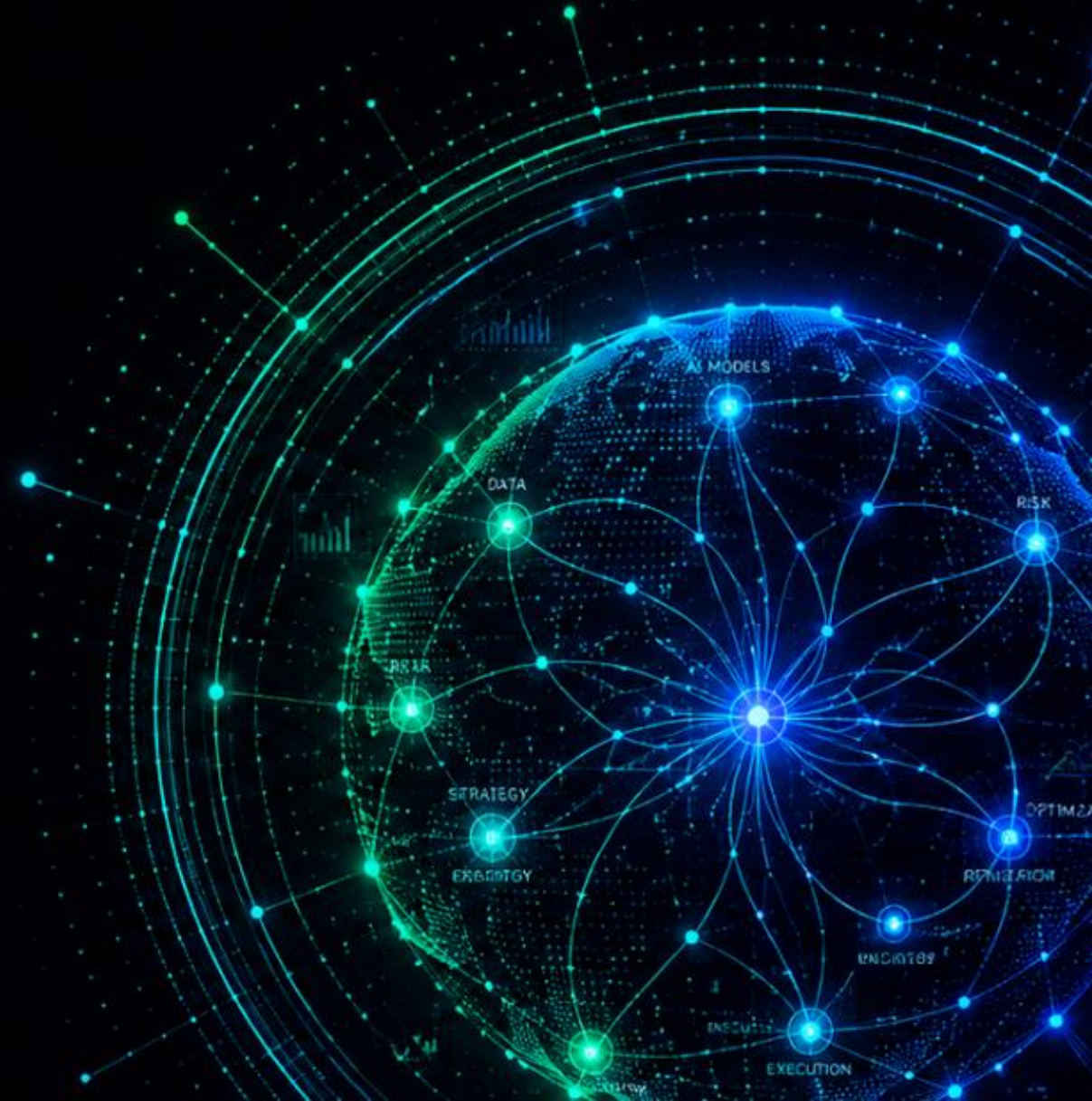


Finance Trends 2026

재무 기능의 재정의

전략·혁신·성장을 이끄는 재무 조직과 CFO의 역할

Navigating the expanded scope of finance



재무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CFO의 역할은 재무 건전성과 성과 관리를 넘어,
전략 수립·자본 배분·AI 전환·미래 경쟁력 설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23개국 재무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그 변화를 수치로 확인시켜 줍니다.
재무 리더의 절반 이상이 이미 기업 전략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AI와 데이터 역량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래 재무 조직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변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플래닝과 민첩한 대응력, 가치 창출 관점의 비용 관리,
AI의 단계적 내재화, 회계와 데이터 과학의 융합, 그리고 기술 인재 확보**입니다.

글로벌 재무 리더들이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비용은 통제 수단이 아닌 전략적 자원 배분 수단이 되어야 하고,
AI는 운영 방식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도입되어야 하며, 인재는 개인의 전문성이 아닌
융합형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CFO는 재무 전문가를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AI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본 리포트가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는 CFO와 재무 리더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핵심 요약] Finance Trends 2026

재무 조직은 기업의 전략·기술·인재를 직접 주도하는 역할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핵심 트렌드 (Key Highlights)

- 1** **속도 우선 전략**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고도화된 시나리오 플래닝과 애자일 거버넌스 구축
- 2** **재무 리더의 전략 리더십 부상**
AI와 클라우드 활용이 전략적 영향력 확대의 핵심 동력
- 3** **집중·정밀·원칙에 따른 비용관리 실행**
재무 주도의 비용 관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 4** **에이전틱 인사이트로의 전환**
재무팀 업무에 AI 도입은 확산 중이나, 성과 창출과 에이전트 구현은 초기 단계
- 5** **재무 조직의 기술 인재 확보**
미래 재무 조직은 데이터 과학과 회계 전문성의 결합으로 재편

실증 데이터 및 시사점

- 재무 리더 58%가 시나리오 플래닝(30%)과 애자일 거버넌스(28%)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 외부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신속 대응하는 조직 역량 강화가 목적
- 재무 리더 57%가 기업 전략 수립에 주도적 역할 수행, 책임 범위는 평균 20% 확대 → 전략적 영향력이 높은 리더일수록 AI·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해 성장과 혁신을 주도
- 비용 관리를 직접 주도하는 리더의 목표 달성률(47%)이 단순 지원 역할(39%) 대비 높음 → 클라우드·AI·자동화를 활용해 비용 관리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경영 역량으로 내재화
- AI 솔루션 전면 도입 63%, 그러나 측정 가능한 성과 확인은 21%, 에이전트 완전 통합은 14%에 불과 → AI 활용은 빠르게 확산 중이나 실질적 가치 창출과 에이전틱 구현은 여전히 과제
- 재무 리더 64%가 2025~2026년 AI·데이터·시나리오 모델링 인재 확대 계획 → 인재 부족·업무 과중 속에서 데이터 과학자와 재무 전문가 협업으로 전략 조직으로의 전환 가속

재무의 재정의 — 전략과 성장을 주도하는 CFO와 재무 조직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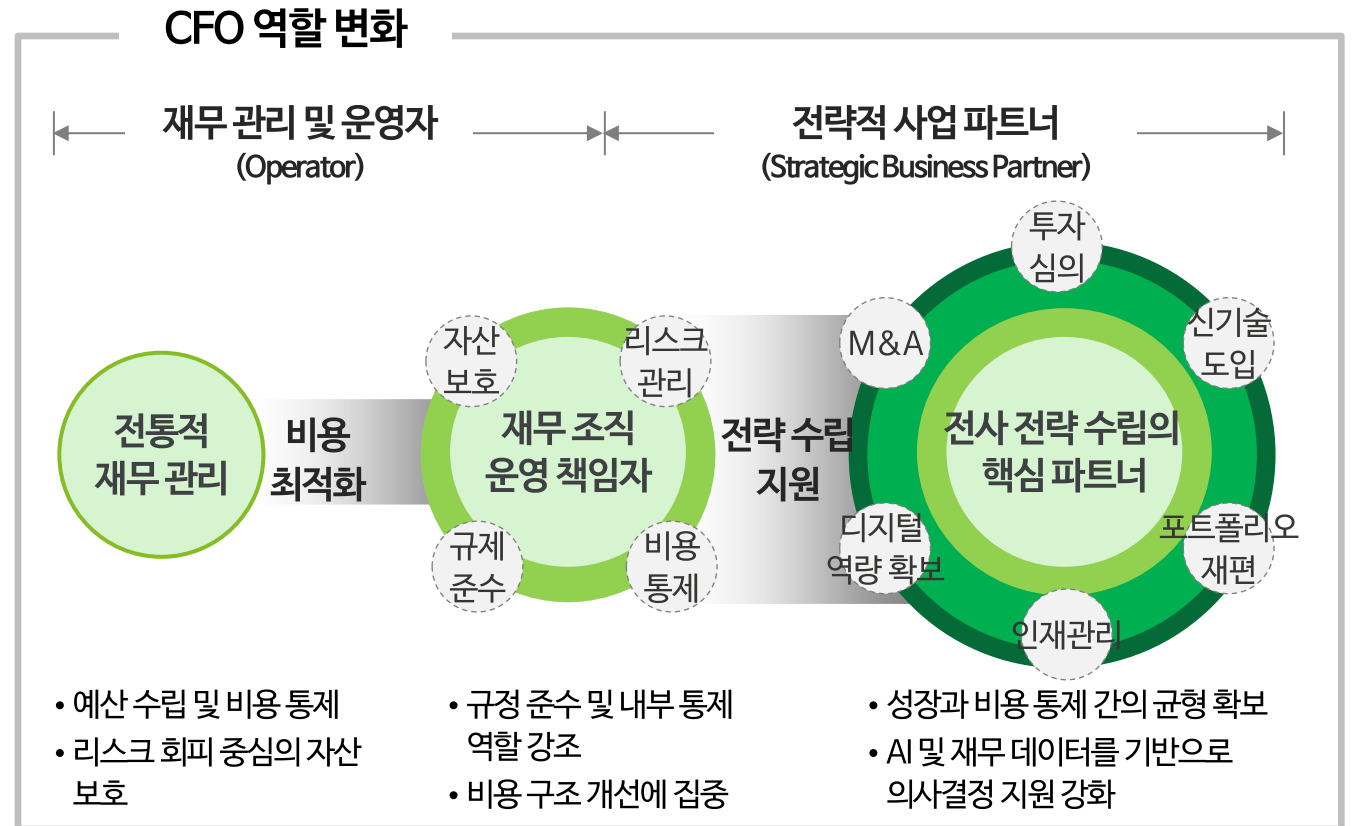
CFO와 재무 조직은 단순 관리 기능에서 벗어나 비용·혁신·성장을 직접 주도하는 전략적 핵심 조직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CFO와 재무 리더들은 과거와 달리 신규 시장 진출 지원, M&A 준비, 미래 경쟁력 확보 등 전략적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오늘날의 CFO들은 사고방식, 운영방식, 인재 채용 등 모든 면에서 과거와 다르다. 이들은 신규 시장 진출, M&A 준비, 미래 대비 조직 구축을 직접 주도하면서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딜로이트는 글로벌 기업의 재무 조직이 직면한 변화와 과제를 분석했다. 딜로이트는 전 세계 23개국,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의 CFO 및 재무 리더 1,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재무 임원 9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재무 조직과 CFO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다섯 가지 핵심 트렌드가 도출됐다. 공통된 방향은 분명하다. 재무 조직은 더 이상 단순한 지원 기능이 아니라, 비용 최적화·혁신 촉진·성장 전략 수립을 직접 주도하는 핵심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사 개요]

전 세계 23개국 1,326명의 현직 재무 리더 설문 및 9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재무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Deloitte의 2026년 재무 트렌드 설문 조사는 2025년 봄에 전 세계 1,326명의 재무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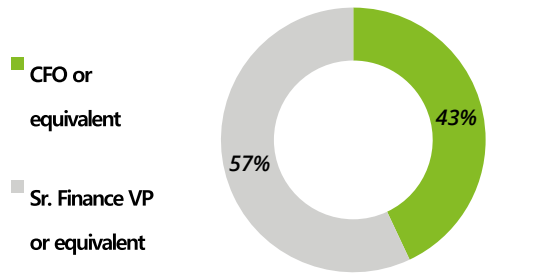
응답자에는 CFO 및 CFO 바로 아래 한 단계의 재무 고위 전문가가 모두 포함 되었다.

모든 응답자는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US\$1 billion)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한다. 리더들은 23개 국가의 다양한 산업 및 부문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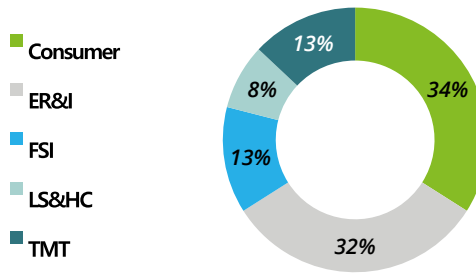
설문 종합 후, 각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Deloitte는 다양한 글로벌 조직의 재무 임원 9명과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다.

국가	응답자 수	국가	응답자 수	국가	응답자 수	국가	응답자 수
United States	566	Brazil	42	Italy	34	Belgium	10
United Kingdom	92	Mexico	42	Spain	33	Malaysia	6
Germany	82	Netherlands	39	Canada	30	Colombia	2
Australia	71	South Korea	39	Argentina	18	Philippines	1
Japan	62	China	37	Singapore	13	Venezuela	1
India	57	France	36	Switzerland	13	Total	1,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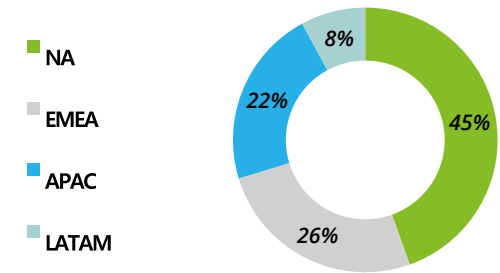
ROLE



INDUSTRY



REGION



Annual Revenue



■ \$1B to less than \$5B ■ \$5B to less than \$10B ■ +\$10 billion

Annual Growth Rate



■ Decrease / Stay the Same ■ Inc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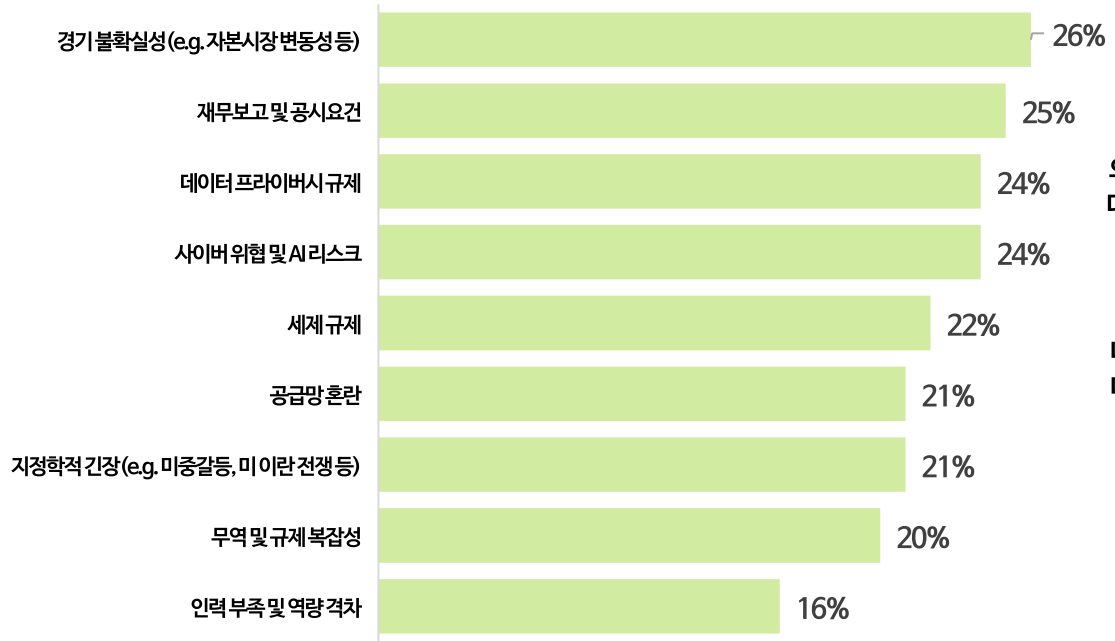
Trend 1: 속도 우선 전략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플래닝과 애자일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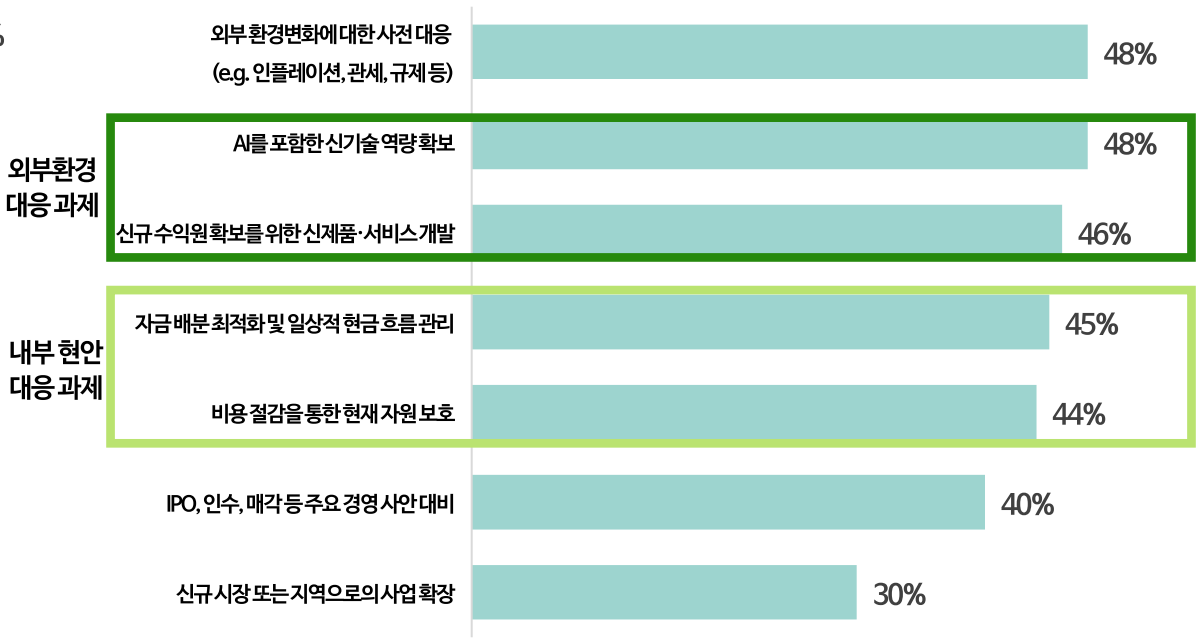
재무 리더의 위기 인식과 도전 과제

재무 리더들은 복합적인 리스크 환경속에서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비용 절감·현금흐름 관리), 동시에 중장기 투자(기술·신사업)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 조직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외부 요인 (N=1326) 중복 선택 허용



2026년 조직 성과를 위한 최우선 추진 과제 (N=1,326) 중복 선택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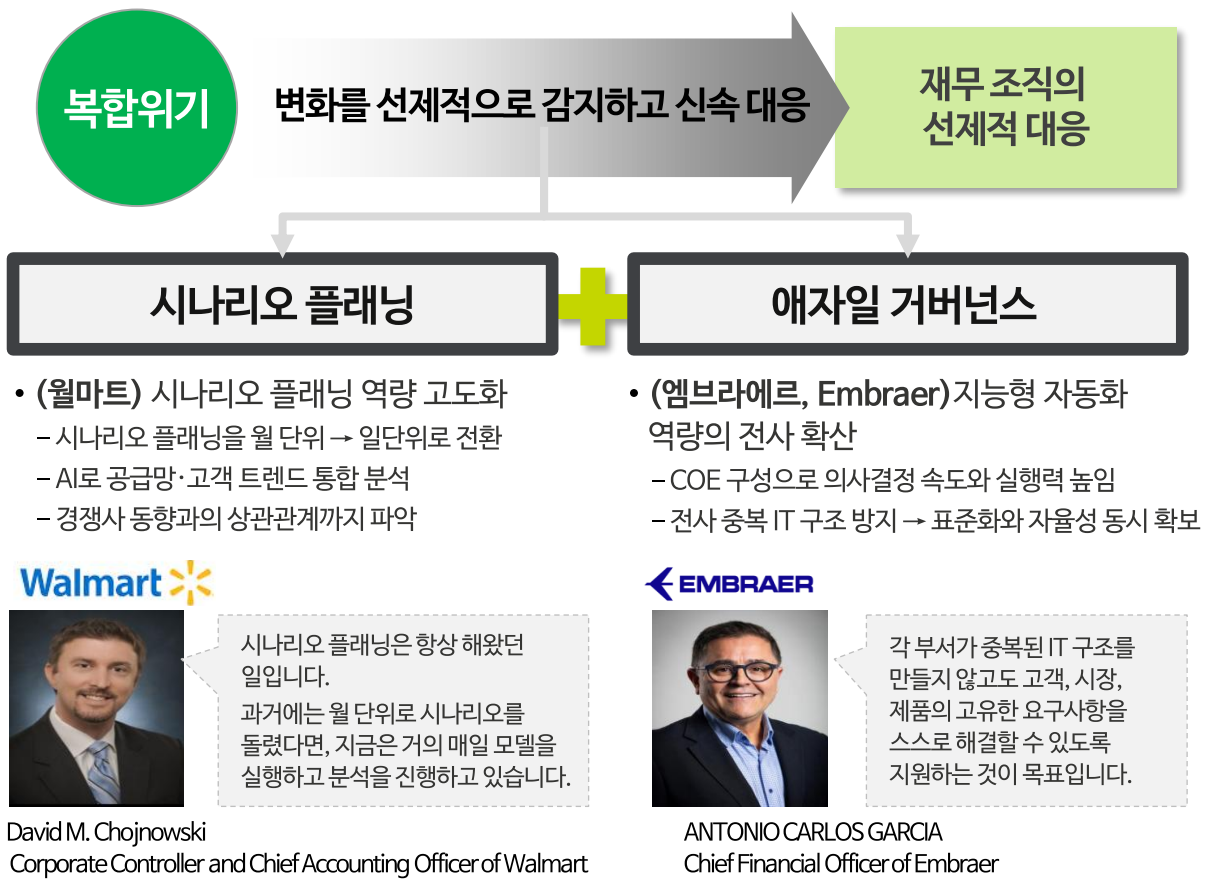
- 1위 경기 불확실성(26%)부터 9위 인력 부족(16%)까지 10%p 차이에 불과
- 특정 리스크에 쏠림 없이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분산 ➔ CFO들은 복합위기에 직면

- 외부 환경 변화 대응과 AI·신기술 역량 확보가 각각 48%로 동일
- 비용 절감(44%과 현금흐름 관리(45%)도 높은 순위 점유 ➔ 외부 대응과 기술 투자, 효율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중압박 상황

재무 조직의 신속한 대응 인프라, 시나리오 플래닝과 애자일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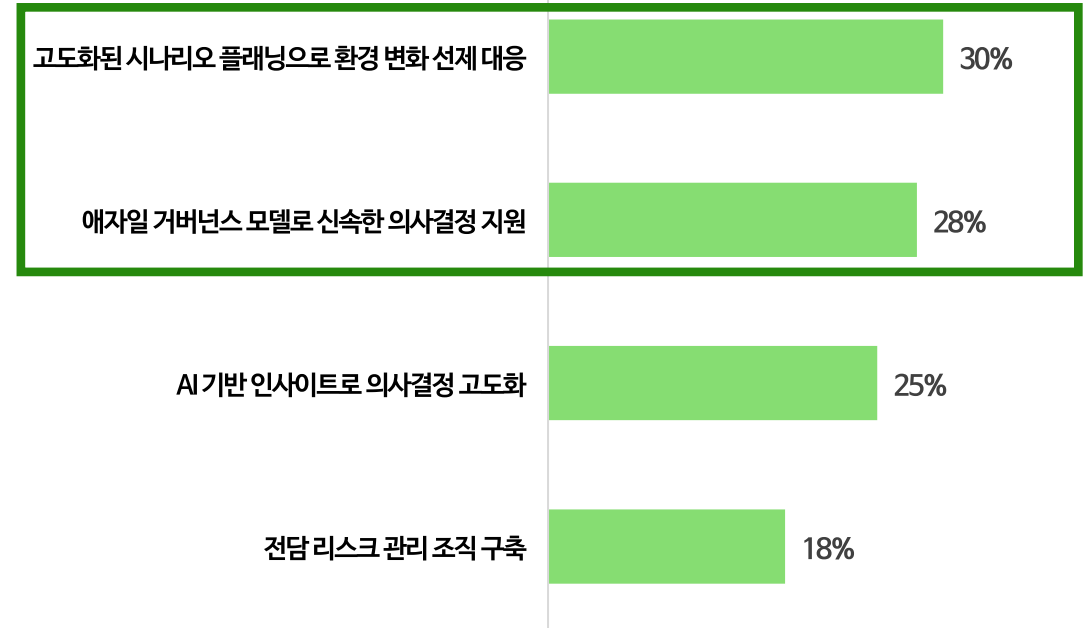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재무 조직의 대응 속도와 분석의 정교함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 조직의 기본 인프라



복합위기 속 불확실성 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n = 1,326)

- 시나리오 플래닝 (30%) —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측을 우선시
- 애자일 거버넌스 (28%) — 예측한 것을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는 구조
- AI 기반 인사이트 (25%)와 전담 리스크 조직 (18%)은 상대적으로 후순위
 - ➔ 불확실성 대응의 핵심은 기술 도입보다 조직의 예측력과 실행 속도





Trend 2: 재무 리더의 전략 리더십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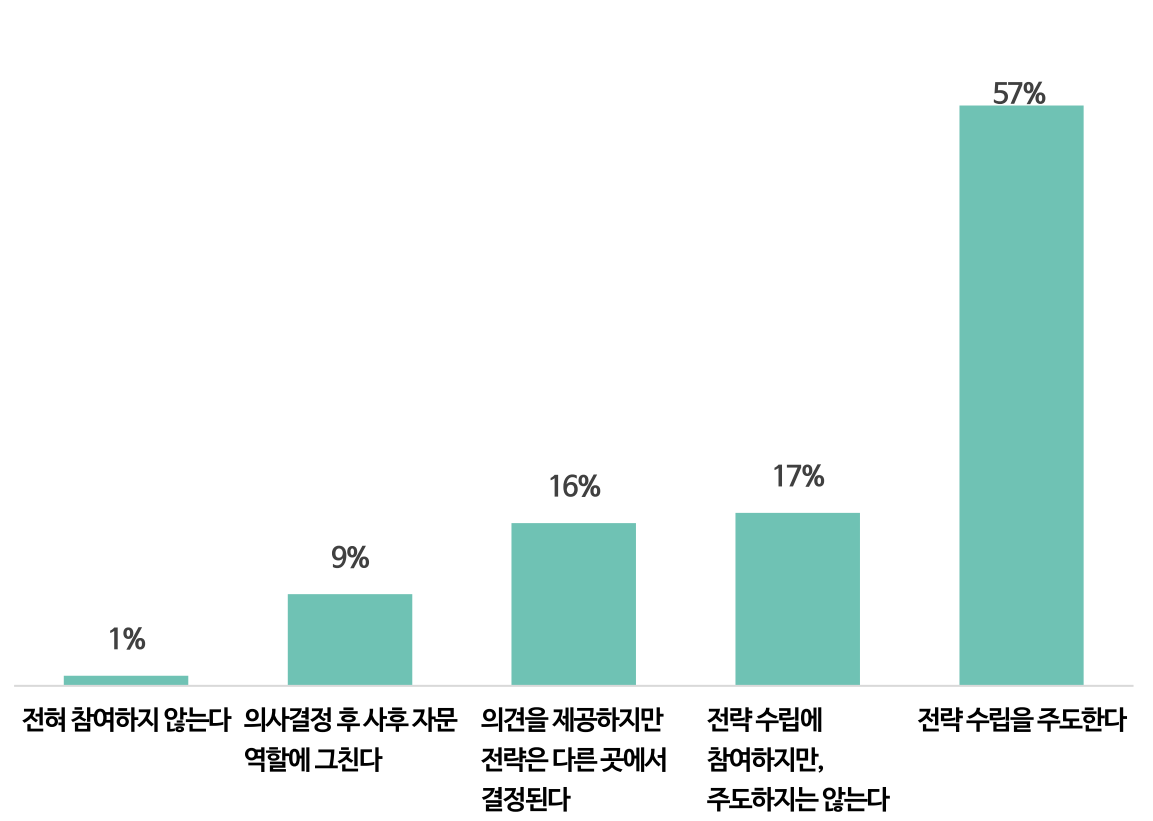
AI와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는 재무 리더가
전략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재무 리더의 역할 범위 확대

재무 리더의 전략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한 리더와 형식적 참여에 그치는 리더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귀사의 재무 기능은 기업 전략 수립에 어느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n = 1,326)



재무 리더의 위상 변화

재무 리더의 전략 수립 참여도 高

- 재무 리더 57%, 전략 수립을 직접 주도 → 재무 리더의 사내 포지션 격상
- 참여(17%) 포함 시 74%가 전략에 실질 관여

재무 조직의 실질적 전략 관여도 低

- 참여와 주도 사이의 격차(40%p) → 전략에 관여하더라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리더가 여전히 상당수
- 사후 자문(9%)·의견 제공(16%) 그룹은 전략 실행력이 제한적 → 재무 조직의 역할이 형식적 참여에 그칠 리스크 존재



Marie Myers
Executive Vice President & Chief Financial Officer, Hewlett Packard Enterprise

Hewlett Packard Enterprise 지난 18개월간 우리 재무 조직의 여정은 변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를 활용해 팀이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전사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무 리더의 역할 범위 확대 - AI·클라우드를 재무 조직의 역할 재정의

AI·클라우드를 통해 업무를 자동화·표준화한 재무 조직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며 비즈니스의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CFO 역할에 따른 AI·클라우드 등 기술 활용 격차 (n=1,326)

- 전략을 주도하는 재무 리더는 AI·클라우드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 기술 역량이 재무 리더의 전략적 위상을 결정



글로벌 사례 재무 조직의 전략 조직으로의 전환

- 글로벌 기업의 재무조직은 반복적·일상적 업무를 자동화·표준화 → 확보된 시간과 역량을 전략적 업무에 재배치



- AI로 재무팀을 전략적 파트너로 전환
- 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을 함께 만드는 조직



- 클레임 처리·일상 보고 등 반복 업무를 표준화·자동화 → 팀은 고부가가치·미래 지향적 업무에 집중
-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재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로 진화



Trend 3: 집중, 정확성, 원칙에 따른 실행

재무 주도의 비용 관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전략적 비용 관리의 핵심

재무 리더가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관리를 집중력 있게,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며 직접 주도할 때, 비로소 그 성과는 전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의 핵심 (Focus. Precision. Discipline)

집중 (Focus)

- 성장 동력과 비용 효율화 영역을 명확히 구분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을 축소할지 선택과 집중
- 모든 기능에 균등하게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닌, 가치 창출 중심의 접근

정확성 (Precision)

- 재무리더의 경험치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으로 의사 결정
- 비용 절감 기회를 정량적으로 식별하고, 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 부서별·프로세스별로 미세한 비용 낭비 요소까지 포착

원칙 (Discipline)

- 일회성 비용 절감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인 규율과 책임 문화로 정착
- 예외나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과 실행 체계
- 전 구성원이 비용 관리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 구축

비용 관리 영역에서 재무 리더의 역할과 성과 차이

- 설문 응답 재무 리더의 36% (CFO 한정 42%)가 비용·지출 관리 주도
- 나머지 64%는 지원 역할(정보 제공, 분석 지원 등)에 한정

성과 차이

- 비용 관리 주도**
 - 비용 절감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할 확률이 47%
- 비용 관리 지원**
 - 비용 절감 목표 달성률이 39% 에 불과

재무 리더가 비용 관리 주도 필요

- 비용 관리는 '회계적 기능'이 아닌 전략적 리더십 영역
→ 단순 지출 통제가 아닌, 자원 배분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의사 결정으로 재정의 필요
- 지속 가능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집중·정확성·원칙이라는 3대 기준을 체계화
→ 무분별한 지출 삭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실행과 문화로서의 규율이 뒷받침되어야 함

재무 주도 비용 관리가 측정 가능한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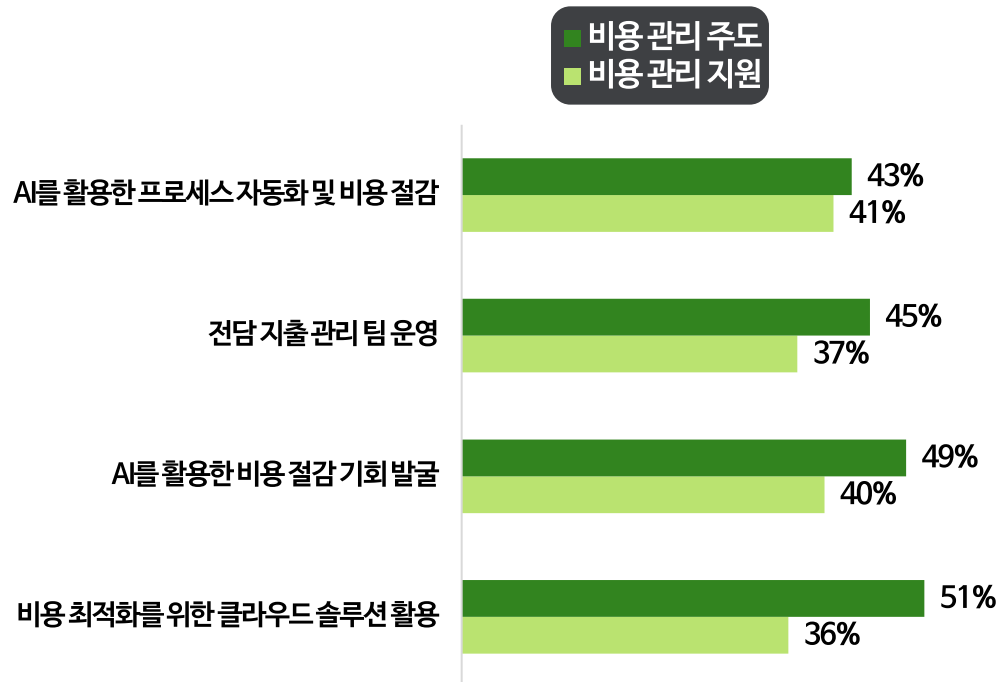
비용 관리의 주도권을 쥐 재무 조직만이, 클라우드·AI·전담 팀을 통해 비용 관리를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 경영 역량으로 만들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 주도 vs 지원 역할 비교

(n = 1,326)

귀사에서 현재 활용 중인 비용 관리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책임이 아닌, 본인이 주된 책임자인 업무만 선택)



글로벌 사례 비용 관리 성과를 만드는 세 가지 조건: 클라우드·AI·전담 팀

• 클라우드는 비용 구조의 유연성을, AI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기회 발굴을, 전담 조직은 이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경영 규율로 운영

클라우드

→ 유연성 확보

- 고정 하드웨어 비용 없이 자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 단, FinOps¹⁾ 팀 없이 방치 시 오히려 비용 증가 리스크

AI

→ 자동화와 인사이트

- 수십만 건의 매출채권 거래 사전 분석 및 반복 프로세스 자동화
- 대금 지급 조건을 지키기 어려운 계정을 선제적으로 식별

전담 조직

→ 일관된 원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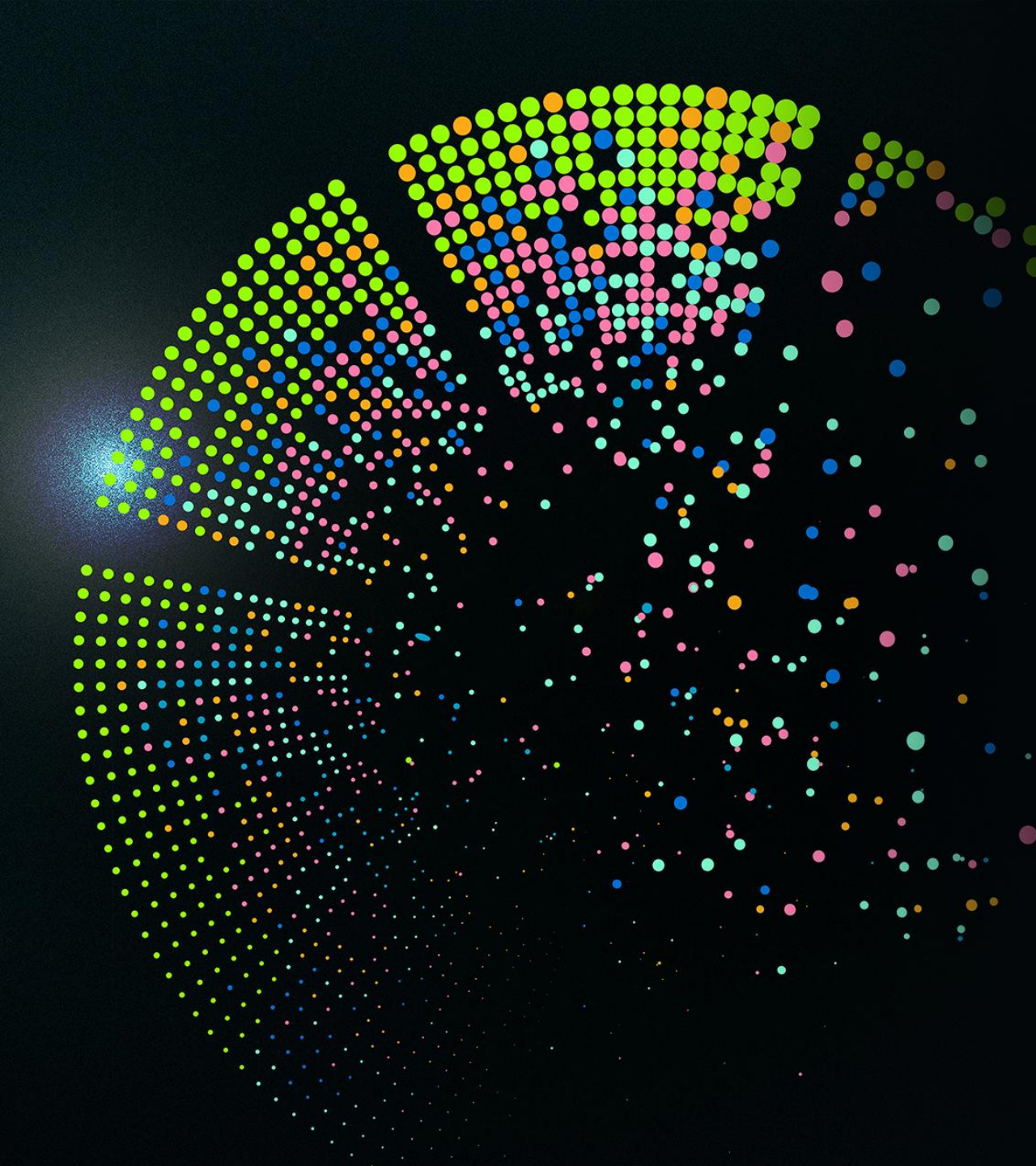
- 무조건적 비용 삭감이 아닌 기회 발굴 중심
- 교차 기능 협업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지속적 비용 최적화

글로벌 사례



- FP&A(Financial Planning & Analysis)팀 내 비용 관리 조직 운영
- 인력 단위당 총이익 지표 설계 → 전사적 비용·수익 행동 유도
- 비용 규율을 조직 문화의 핵심으로 정착

1) FinOps는 재무(Finance)와 개발운영(DevOps) 전문성을 결합해 클라우드 지출을 실시간으로 추적·최적화하는 전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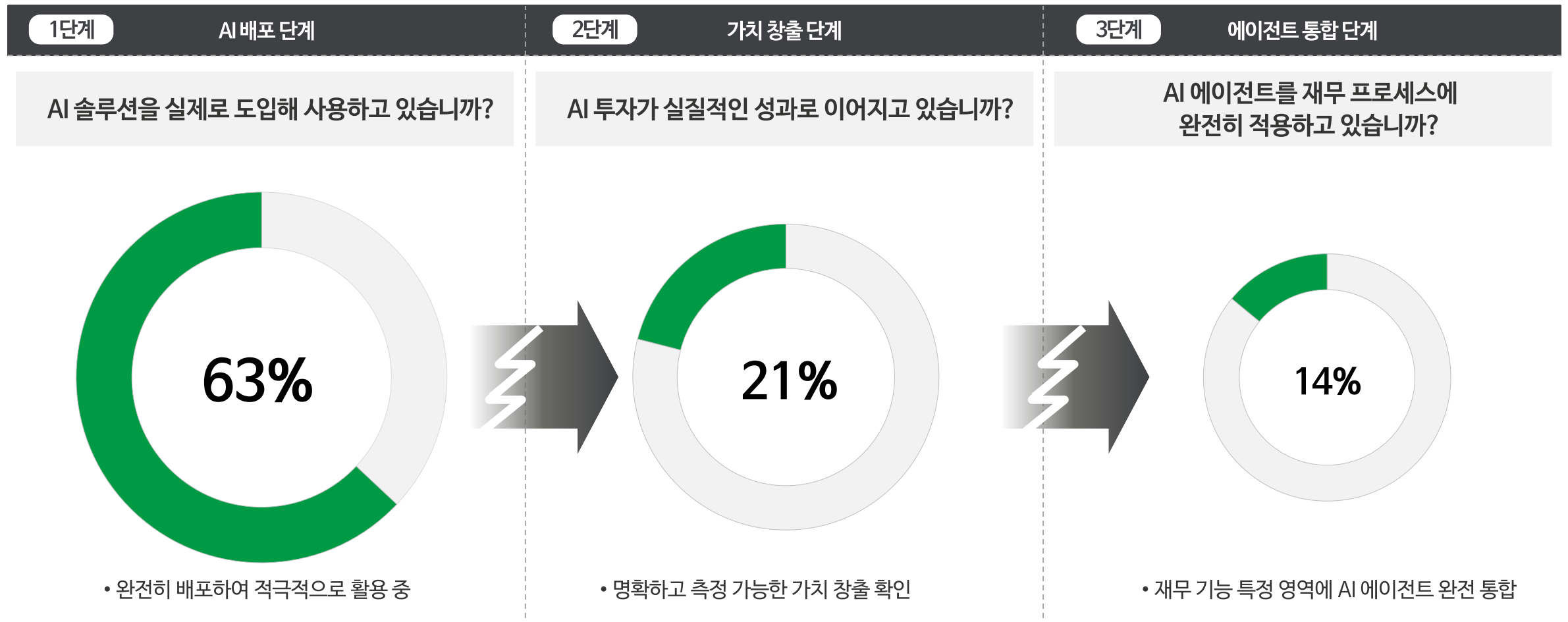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colorful dots (green, yellow, orange, red, pink, blue, purple) on a dark background. The dots are arranged in a grid pattern that forms the continents, with some dots scattered outside the main map area.

Trend 4: 에이전틱 인사이트로 전환

AI 도입은 확산되고 있지만 성과
창출과 AI 에이전트 구현은 초기 단계

AI 도입 현황 및 성과

재무 조직의 63%가 AI를 도입했다고 응답했지만, 명확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응답은 21%, AI 에이전트를 업무에 완전히 통합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낮아지는 응답률은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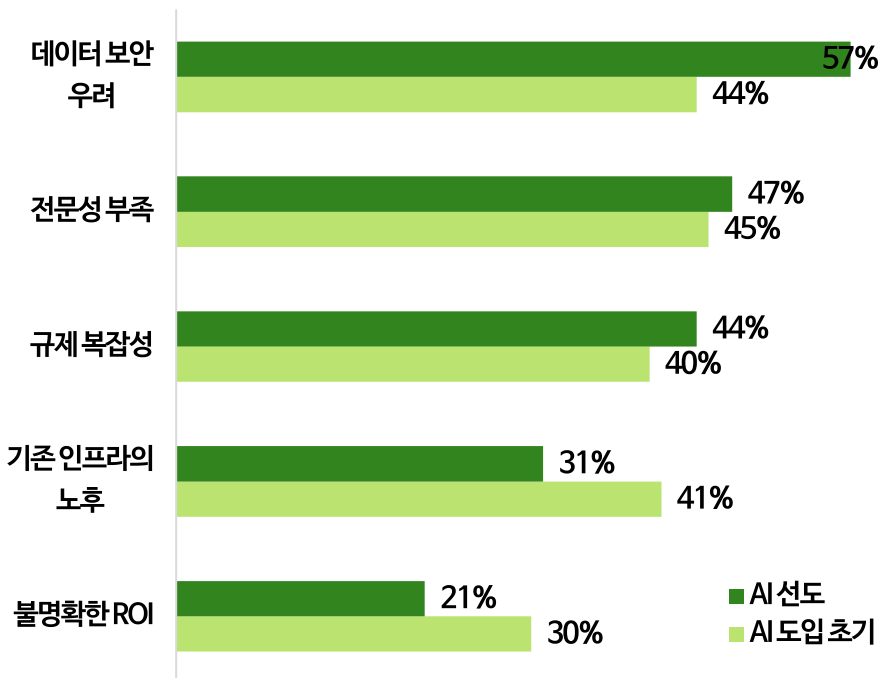


AI 도입 시 직면한 장애 요소

AI 도입 초기에는 ROI와 레거시가, 고도화 단계에서는 데이터 보안과 규제가 핵심 장벽으로 부상하는 만큼, 단계별로 달라지는 장애 요인에 맞는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AI 도입 단계별 장애요인 (AI 선도 그룹 vs. AI 도입 초기 그룹, (각 n=182, n=1,048))

귀하의 조직 내 재무 기능에서 AI 도입의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무 기능 내 AI 도입 시 장애 요인 및 고려사항

- AI 초기 도입 그룹은 투자 대비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낯은 시스템 환경이 AI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식
- AI 선도 그룹은 정교한 규제 대응, 고급 전문 인력 확보, 데이터 보안을 더 큰 과제로 인식

AI 도입 초기	AI 도입 후 고도화 단계	주요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I 입증, 레거시 시스템 → 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보안, 규제, 전문성 →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AI 성숙도 진단과 차별화된 도입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거버넌스가 핵심 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그룹의 57%가 데이터 보안을 최대 장벽으로 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보안과 전문 인재 확보는 모든 단계에서 공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부족은 지속적인 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AI 리터러시가 아닌, 재무+AI+보안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장애 요인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안 등 규제 변화 대응 →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운영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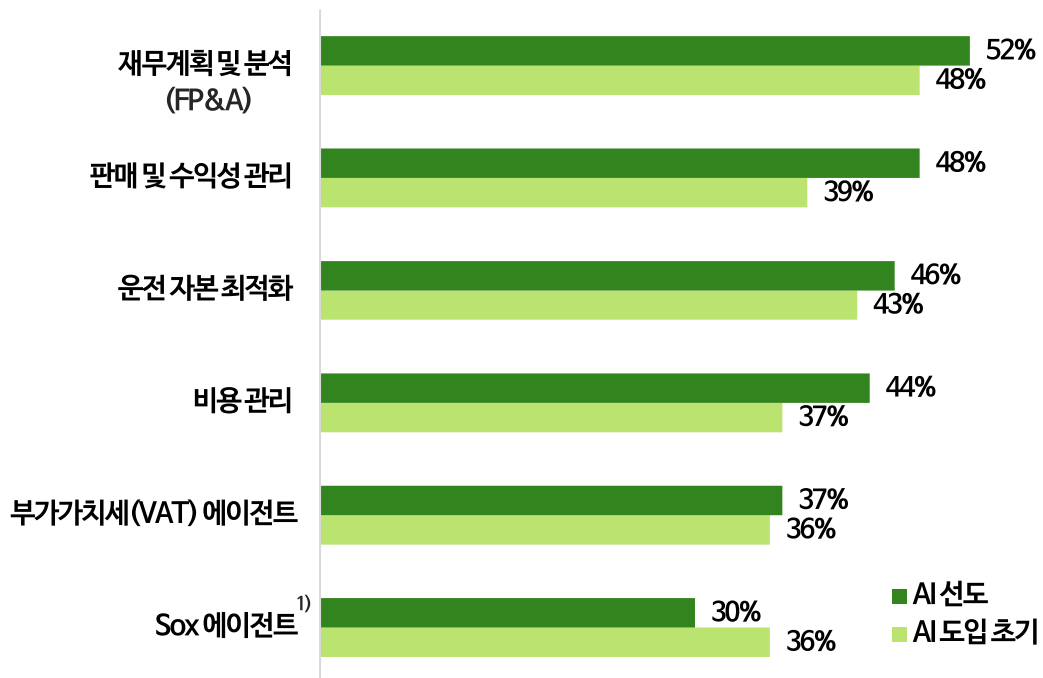
AI 에이전트가 재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역

재무 기능 내 AI 에이전트의 영향은 재무 계획 및 분석(FP&A)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AI가 고도화될수록 그 영향 범위가 판매 및 수익 창출 영역, 운전 자본 최적화, 비용 관리 순으로 확장될 것 입니다.

AI 에이전트 영향 영역

(AI 선도 그룹 vs. AI 도입 초기 그룹, (각 n=182, n=1,048))

재무 기능 내에서 AI 에이전트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1)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을 기반으로 한 내부 통제 자동화 에이전트

글로벌 사례

AI 에이전트 활용 영역

FP&A → 수익 창출 순으로 AI 에이전트 확장; 내부 통제(SOX)는 거버넌스 선행 후 적용

FP&A
↓
AI 에이전트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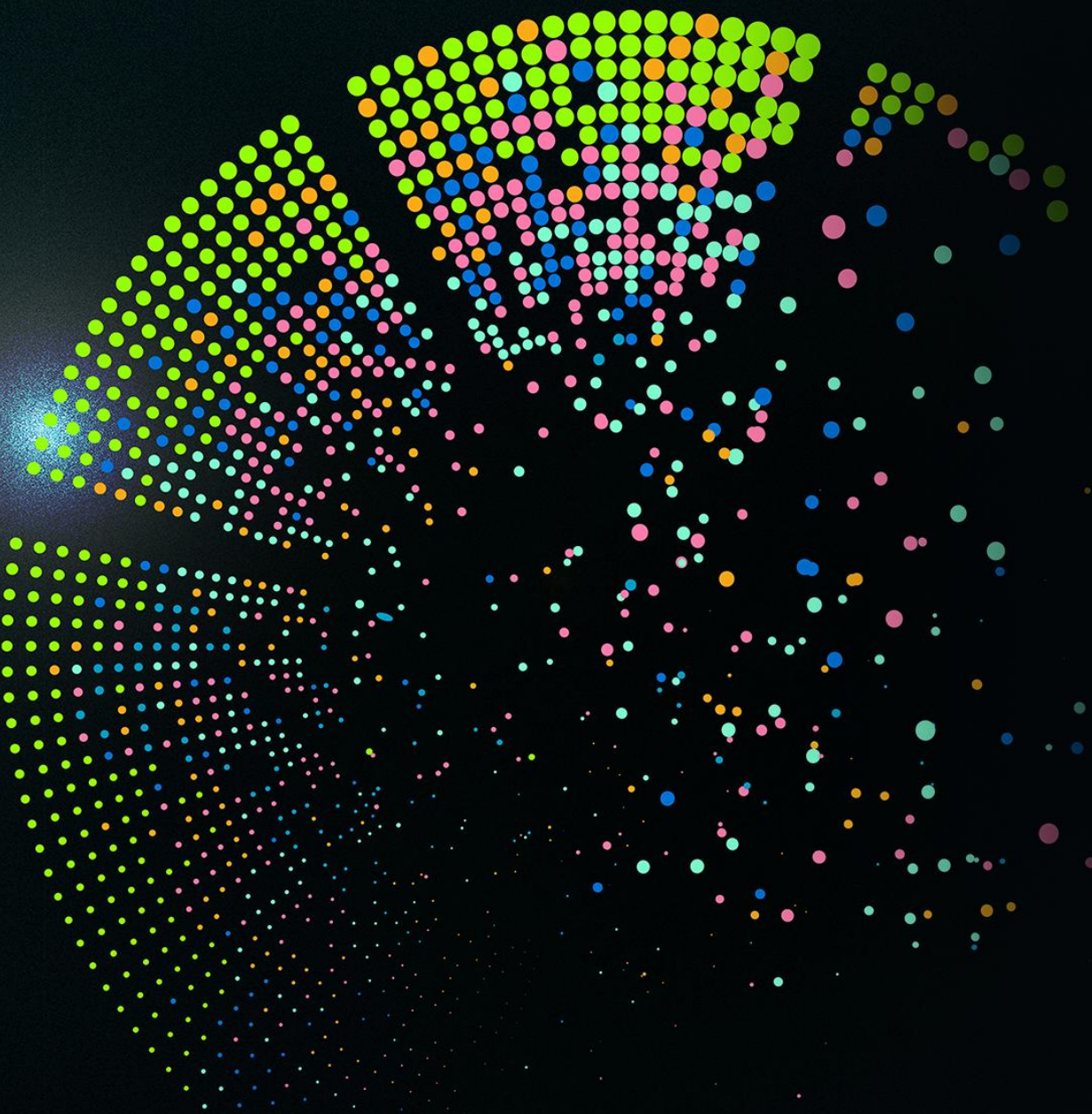
- 양 그룹 모두 1위 — AI 성숙도와 무관하게 가장 먼저 주목하는 영역
 - HP엔터프라이즈 — 에이전틱 AI로 예측 분석·의사결정 자동화, 팀은 전략 업무에 집중
 - Graybar — AI로 예측·재고·현금흐름 최적화, 시나리오 플래닝까지 확장

판매·수익성 관리
↓
AI 선도 그룹이 가장 주목

- 격차 +9%p로 최대 — AI 고도화될수록 비용 절감에서 수익 창출로 역할 진화
 - Algar Telecom — AI 에이전트 Billy가 첫 송장 25% 자동 검토, 9개월간 150만 달러 추가 이익 창출

SOX 에이전트
↓
유일한 역전 (-6%p)

- AI 선도 그룹에서 오히려 낮음 (-6%p): 내부 통제·감사 영역은 규제·보안 리스크로 인해 신중한 접근 필요
 - Johnson & Johnson: 데이터 관리자 지정으로 각 재무 프로세스의 데이터 보호 책임을 명확히 구분 — SOX 영역의 AI 적용에 앞서 거버넌스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접근



Trend 5: 재무 조직의 기술 인재 확보

미래 재무 조직은 데이터 과학과
회계 전문성의 결합으로 재편

기술 인재 공급 위기

재무 조직은 전통 인력은 고갈되고, 기술 인력 수요는 폭증하는 양면의 인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무 조직 인력의 현실

- 재무 조직은 AI 도입이 확대될수록 기술 인재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전통적 회계 인력은 감소하고 퇴직은 다가오는 이중 압박에 직면

기술 인재 공급 필요성 증가

- 응답자의 64% 가 2025~2026년 동안 회계 업무내 기술 역량 접목 계획 보유
- CFO들이 꼽은 최대 인력 과제 Top3 (숙련된 인재 부족, 신기술에 대한 직원 저항, 업무과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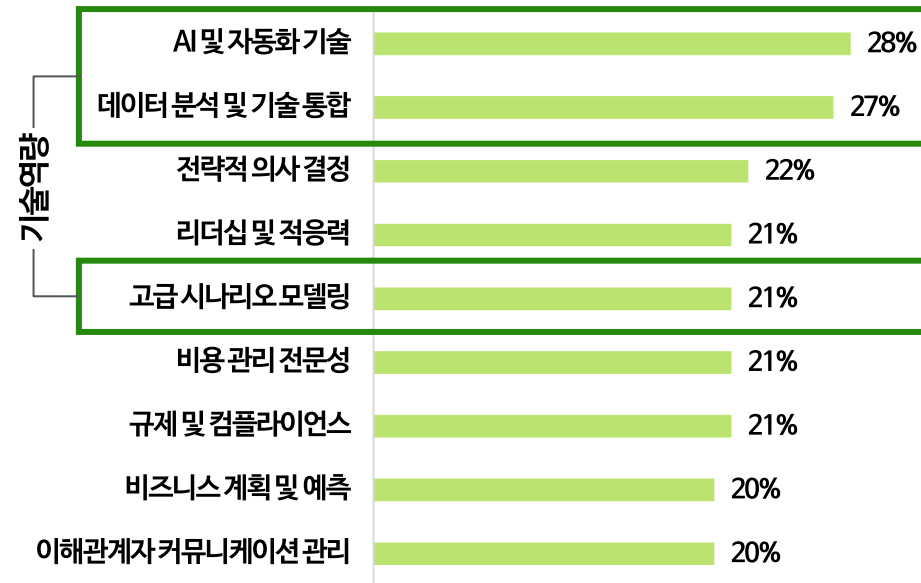
전통적 회계 인력 공급의 위기

- CPA 시험 응시자: 지난 10년간 27% 감소 (한국 26년 응시자는 전년대비 14%감소)
- 회계 전공 졸업생: 지속적 감소 추세
- 회계 전문가 연령: 75% 가 퇴직까지 15년 이내

재무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Top skills) 역량

- 전통적 재무 스킬은 이미 기본으로 간주되며, AI·데이터 역량이 새로운 차별점으로 부상
-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역량은 AI 및 자동화 (최우선), 데이터 분석 및 기술 통합 순

귀사 재무 팀이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할 역량은 무엇입니까? (n= 1,326)



재무 부문에 기술 인재 접목

미래형 재무 조직은 CFO가 AI·자동화와 전문 인재 확보, 데이터 과학·회계 융합을 직접 이끌고, 기술을 수용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 실현될 것입니다.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 (Talent strategies)

- 글로벌 재무 리더들은 AI·자동화로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회계 전공 외 인재 채용, 내부 교육, 데이터 과학과 회계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재무 조직을 구축 중

전략방향	응답비율	글로벌 사례
AI·자동화로 생산성 격차 해소 (기술로 부족한 인력 대체)	40%	Walm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업무(이메일, PPT)부터 AI 에이전트 활용 계약 분석까지 상향식 교육 • "잼 세션(사내 CoE 형태)"으로 AI 내재화
현직자 특화 교육(업스킬링)	39%	A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위 재무 리더 50~60명 직접 교육 • 리더가 자신의 팀을 재교육하는 확산 구조
회계전공 외 인재 영입	35%	Johnson & John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분석 팀 내 회계사와 데이터 과학자 페어링 → 회계와 엔지니어링 전문직의 융합
내부 인재 조달	28%	Bread Finan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데이터 과학 역량 투자로 전통 재무 지원에서 전략적 성장 촉진자로 전환

전략 추진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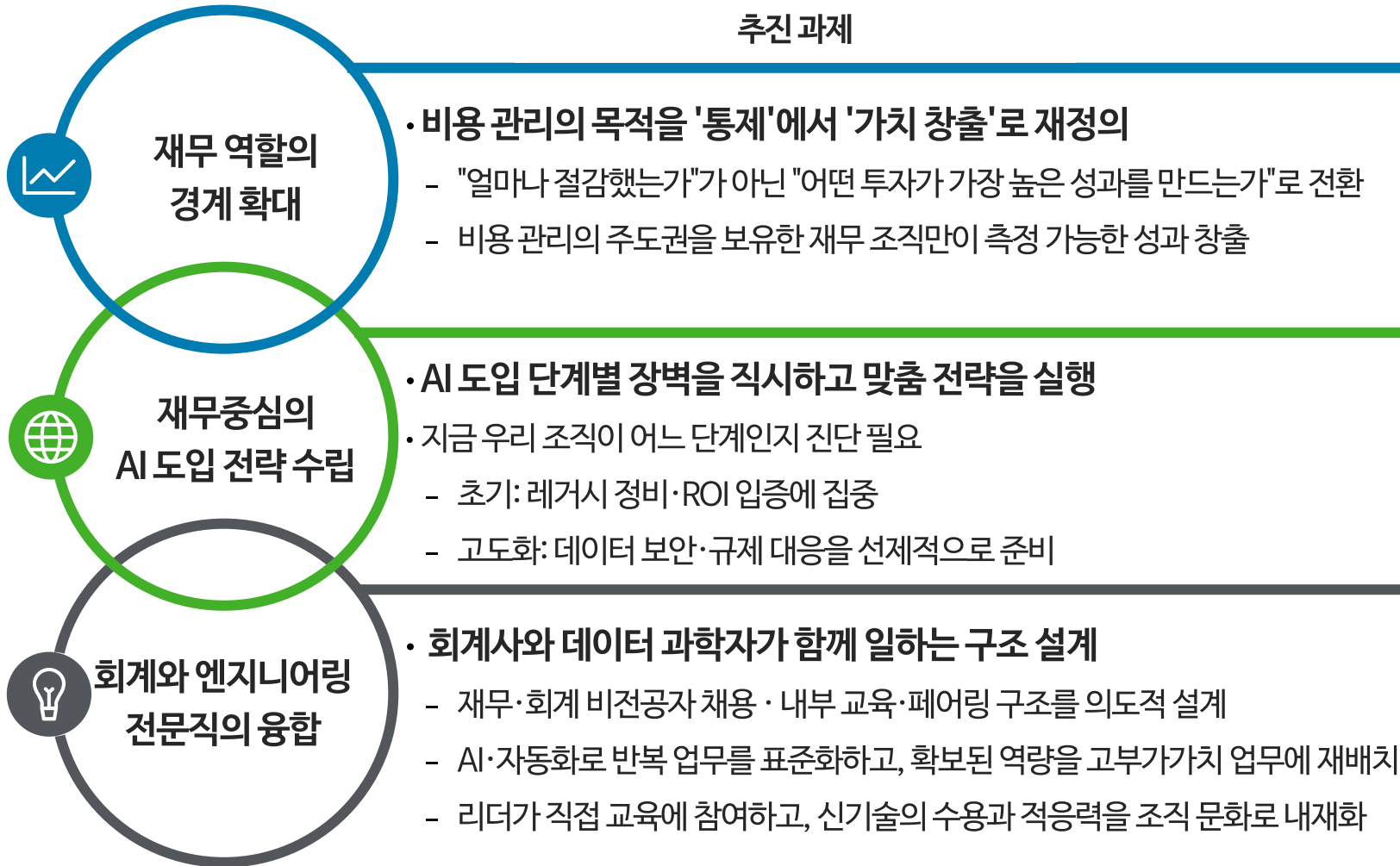
리더십의 직접 참여, 기술과 인재 전략의 통합 설계, 기술 수용 문화 조성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전략은 HR의 과제가 아닌 CFO·재무 리더가 직접 주도 • ABB 사례처럼 최고위 리더가 직접 교육받고 팀으로 확산하는 구조가 효과적
기술-인재 통합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자동화 도입과 인재 육성을 별개가 아닌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
기술 수용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마트의 "잼 세션"처럼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AI를 탐색하는 환경 조성이 핵심 • 신기술에 대한 저항 완화를 위해서는 강제가 아닌 참여 유도 방식이 효과적

[결론] 딜로이트가 제안하는 미래 재무 리더의 조건

비용은 전략으로, AI는 단계적으로, 인재는 융합으로 변화하는 재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 과제



미래 CFO의 포지셔닝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Strategic Business Partner)

재무 AI 오케스트레이터
(Finance AI Orchestrator)

재무 인재 설계자
(Finance Talent Architect)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 & 앱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AI 시대의 전략과 리스크, 산업별 핵심 이슈를 다룬 **분석 리포트**
-  소비심리지수·자동차 구매의향 등 실물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Deloitte Index**
-  딜로이트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글로벌 행사의 현장을 담은 **영상 콘텐츠**
-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실행 인사이트를 담은 **고객 성공 사례**

카카오 채널

앱

 카카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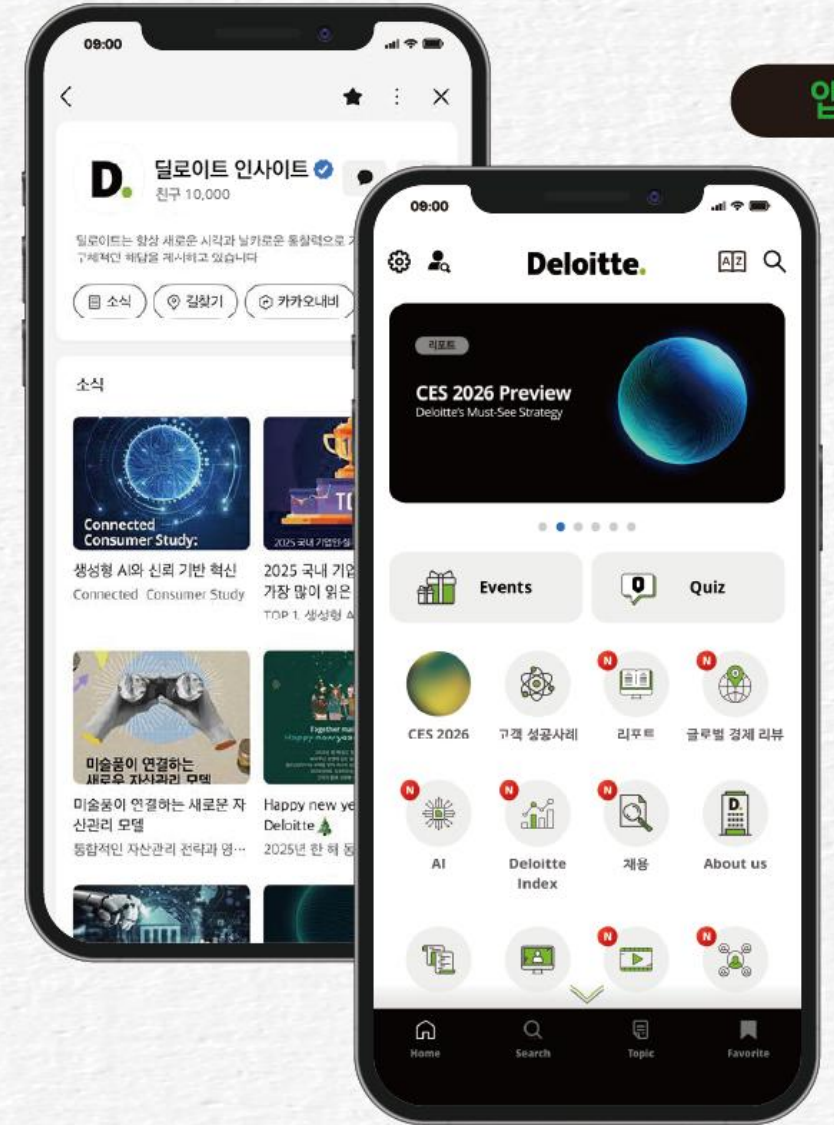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